



Vol.

73

제238회 • 제239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의회소식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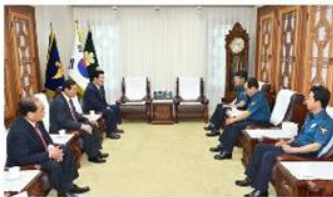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소식

제288회·제289회 임시회

73

CONTENTS



- 02 개회사
- 03 후반기 원 구성
- 05 본회의
- 06 핫이슈
- 08 의원논단
- 09 5분 발언
- 12 현장의정
- 13 상임위원회
- 18 제289회 주요안건처리현황
- 22 연구·토론
- 25 포토의정
- 39 느낌 충남

·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충청남도의회소식 제73호

· 발행 충청남도의회사무처
· 전화 041)635-5102
·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실교읍 도청대로 600
· 디자인·제작 동방상사

· 편집 총무담당관실 기획홍보팀
· 팩스 041)635-5009
·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지난 제288회 임시회를 통해 신임 의장단을 구성하여 7월 1일부터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의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충남도의회를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이라는 '제10대 충청남도의회 3대 의정비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도의회와 함께 일하는 도청, 교육청과의 활발한 대화와 협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마운 마음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210만 도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양하고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권한과 능력이 공직자 여러분께 있습니다.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3농 혁신’과 ‘서해안 비전’, ‘경제비전2030’ 등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여 도민들께서 행복해 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충남을 환황해권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항만, 도로, 철도, 항공 시설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챙겨보고, 각종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새롭게 출발한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초심을 잃지 않으며, 정파를 떠난 협력의 자세로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12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 석 우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윤석우 의원 선출

- 제1·2부의장에 신재원·조치연 의원 각각 선출...후반기 대의기관 가동
- 윤석우 신임 의장 36표, 신재원 부의장 35표, 조치연 부의장 36표 얻어 의장단 인선



조치연 제2부의장(왼쪽), 윤석우 의장(가운데), 신재원 제1부의장(오른쪽)

4선의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원이 제10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 '수장'으로 선출됐다. 또 신재원 의원과 조치연 의원이 부의장 선임 투표를 거쳐 각각 제1·2부의장으로 선임됐다. 충청남도의회는 6월 30일 제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후반기 의장단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윤석우 신임 의장은 재적인원 40명 가운데 39명이 출석한 선거에서 36표를 획득, 후반기 대의기관을 이끌게 됐다. 신재원 제1부의장과 조치연 제2부의장은 각각 35표, 36표를 얻어 부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윤석우 신임 의장은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으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보좌관 제도 추진 ▲연구단체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열린 의정실 운영 ▲지방자치 족쇄 해소를 위한 후원제도 추진 ▲환경해권 개발 지속 추진 및 백제 역사 문화·관광 발전 도모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협력 등을 제시했다. 윤석우 신임 의장은 "원 구성을 함에 있어 초당적인 협력관

계를 유지하며 도의회를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 드린다"며 "충남의 더 큰 도약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과 의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회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며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광디지털대 명상학과를 졸업해 5·6·9대 도의원을 역임한 윤석우 신임 의장은 공동체의식개혁운동 충남공동의장, 자민련 공주시구당 공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신재원 제1부의장은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4·5·6대 도의원과 보령시 축산업협동조합장 등을 지냈으며, 한밭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조치연 제2부의장은 8·9대 도의원과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후반기 원 구성 완료... 6개 상임위원장 선출

- 운영 김종문, 행자 김동욱, 문복 정정희, 농경환 강용일, 안전해소 맹정호, 교육 장기승
- 도정과 교육행정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 제언 등 체계적인 의정 활동 기대



김종문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



정정희
문화복지위원장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장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장기승
교육위원장

충남도의회가 후반기 도정과 교육행정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 제언에 나설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공식 선출했다. 충남도의회는 7월 1일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농업경제환경위원장,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교육위원장 등 후반기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재적인원 40명 의원 가운데 35명이 참석해 진행된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4석, 더불어민주당 2석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최종 인선했다. 우선 의회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마당'을 제공할 운영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이 선출됐다. 도정 전반의 기획과 행정업무를 견제·감시하는 행정자치위원장에는 새누리당 김동욱 의원이 선임됐다. 문화와 복지, 체육 등 국민의 복리 증진 문제를 다루는 문화복지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정희 의원이, 농업과 경제 환경 문제를 다루는 농경환위원장에는 새누리당 강용일 의원이 최종 낙점됐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 해양, 소방 등을 다루는 안전해소위원장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의원이 선임됐다. 도의회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교육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장기승 의원이 선임되어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한 견제·감시, 정책 제언에 나선다. 김종문 운영위원장은 "공부하는 의정상 정립을 통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체제를 활성화하겠다"며 "6개 상임위를 비롯해 특별위원회가 협업해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충남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도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 심의

- 하반기 의원역량 강화 주력...전문성 갖춘 정책의회 등 지역균형발전 제시할 터



충남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활동에 닻을 올렸다.

충남도의회는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도 본청과 사업소, 도교육청 등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도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전낙운 의원(드론의 활용과 발전 방향) ▲홍성현 의원(순환보직 운영의 문제점) ▲정광섭 의원(화력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 인상 방안) ▲김용필 의원(618지방도 확충 방안) 등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 질의 및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석우 의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를 만들고,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등이 많은 고민과 함께 중지를 모아 달라"며 "도민 속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열린 의성을 '현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재표 의원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낡은 서천화력 1·2호기 등 즉각 폐쇄 조치

도내 가동 중인 26기 화력발전소 포함,
 준공 앞둔 태안화력 등 환경 피해 저감 대책 수립 촉구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 된 서천화력 1·2호기 등을 즉각 폐쇄조치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7월 12일 제2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홍재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오래돼 낡은 화력발전소 폐쇄 및 증설 계획을 중단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내 가동 중인 26기 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준공을 앞둔 태안화력 9·10호기, 당진화력 9·10호기, 신보령화력 1·2호기에 대한 철저한 환경 피해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별개로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지역 자원 시설에 표준세율을 원자력 발전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건의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홍재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서해안 지역에서 1년 중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환경 재앙에 준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이라며 “대기오염은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 상황에서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남에 증설 계획을 허가했다”며 “이는 주민 건강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살인면허 발급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의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가칭 KBS 내포방송국 조기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지역방송 인프라 확충 시급...

가칭 KBS 내포방송국 설립 210만 도민 염원

충남도의회가 지역방송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칭 KBS 내포방송국 조기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7월 21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칭 KBS 내포방송국 조기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배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내에 KBS 방송국을 조기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배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충청도에만 유일하게 지역방송사가 없다"며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역할에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내포방송국의 조기 설립은 국가에서 지향하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의 활성화 및 지역의 여론과 소통을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BS는 신도시에 부지를 매입하고 방송국 설립 실시설계비까지 확보했지만, 방송국 설립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며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방송국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도가 역량을 모아 달라"고 강

조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KBS와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방분권 역행을 우려한다

유병국 의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부침을 겪고 탄생한 고귀한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의 과정이고 이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지방분권도 뒤따르게 되었다. 1999년 국민의 정부시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겉으로는 거창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현재의 지방분권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정치권 등 중앙의 엘리트들은 집중된 권력을 놓으려 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권한을 이양시켜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실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하는 지방자치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기존 지방의회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행자부 장관 임의대로 결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의 도계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개정은 지방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은 살림이 넉넉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不)교부 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하고, 도·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지방정부간의 재정격차를 해소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결과적으로는 하향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를 고려하

지 않은 획일적 배분이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어느새 약관(弱冠)에 이르렀지만, 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지방분권은 급격한 퇴보를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퇴보의 길을 접고, 진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답은 이미 알고 있고, 정해져 있다. 바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정책입안 단계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참여, 지역 정책을 결정지을 수 있게 하는 일이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단 한 명의 보좌관도 없는 실정이다. 의원 혼자서 정책과 예산 등에 관한 자료들을 분석하려다 보니 벅차다 못해 숨이 가쁜 상황이다. 예산낭비 및 정책오류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과 입법 및 의정활동 자원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에게 정정보좌관 도입은 꼭 필요하다. 아울러 집행부를 견제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도 반드시 독립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역할이 중대되고 있는 만큼, 현실정치에 맞게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선거자금 조달 등으로 불법 등에 연루가 되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들이 하루 속히 도입되어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 계류 중에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된 상황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영역을 감안하면 의원개인을 보좌할 수 있는 의원보좌관제도의 도입이 20대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일찍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사회의 최고 가치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미래의 정치 질서'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은 더불어 살아갈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며, 시대의 흐름이다. 이 흐름을 역행하면 오직 퇴보만 있을 뿐이다.



전낙운 의원
본회의 2016. 7. 12

'드론' 충남도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 드론 산업 세계 신 먹거리 창출 산업으로 부상...매년 80%씩 성장 거듭
- 현재 각종 규제 가로막혀 중국 80% 이상 석권...전담부서 및 축제 개최 필요

2000년대 초에 등장한 드론은 개발 초기단계에 미사일폭격 연습 시 적기를 대응하는 표적으로 쓰였으며 점차 진화되어 이제는 미사일 기지를 탐지하고, 폭탄을 탑재하여 폭격을 하는 군사용 무기로 본격 개발되었다. 국방과학기술을 상용화하여 휴대폰이나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탄생하였듯이 드론 또한 표적에서 변신한지 불과 10여년 사이에 그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매년 80%씩 폭풍성장을 거듭하여 2020년에는 114억 달러의 시장을 전망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원전 사고지역이나 지진·화산 발생지역 등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최근거리까지 접근하여 정밀 촬영을 한다든지, 산림과 산불감시, 환경감시, 농약살포, 택배, 언론과 방송취재 등으로부터 남녀노소 물론하고 함께 즐기는 첨단 놀이기구이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우듯 무한한 인간의 꿈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와 같은 드론시장의 80%를 중국 업체들이 석권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한국의 삼성전자, LG, 한화, 대한항공, 항우연 등이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는 여기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왜냐 하면 환경녹지국의 산

림과 산불감시를 비롯한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농정국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농약살포를, 경제산업실에서는 전략산업으로서 드론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였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거나 시연을 한다든지 변변한 카달로그 한 장 받아본 적이 없다. 그 와중에 지난 5월 건설교통국에서는 정밀측지 등을 목적으로 고정익과 회전익 드론 각각 한 대씩을 구매하였으며 시·군에서도 드론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청 내에서 드론이 구매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거나 지적을 하고나서야 인접부서에서 요구하면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다. 드론에 대한 기술 사양의 기준을 제시하고 중복구매나 이중 투자를 줄이면서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킬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드론을 <함평의 나비>가 아닌 <충남의 나비>로 키워보자고 제안을 한다. 내년 봄 충남도 우수축제인 논산 딸기 축제와 병행하여 제1회 도지사기 드론경연대회, 교육감기 학생 드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그 첫발을 힘차게 내딛자는 것이다.



정광섭 의원
본회의 2016. 7. 12

화력발전세 kw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야

- 화력발전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수력·원자력세보다 3배 이상 낮게 책정
- 형평성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민 건강 위협...인상될 경우 317억→1,059억 도민 혜택

최근 연일 언론과 방송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전체 53기중 26기가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다. 늘 우리 지역을 청정지역이라고 부르면서도, 또한 수도권에서 귀농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세먼지가 가득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을 드린다. 태안군 의장으로 재직할 때 지식경제부를 찾아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해배출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화력발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화력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의회에서는 결의문까지 채택하여 각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후 2014년 1월 1일 kw당 0.15원으로 화력발전 시설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0.3원으로 100%인상 되었다. 반면 수력발전은 1992년 1월 1일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 1월 1일부터 kw

당 0.5원을 부과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1원으로 100%인상 되었다. 원자력발전과 수력발전은 공해와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kw당 1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공해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화력발전은 kw당 0.3원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그래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도 kw당 1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한다. 얼마전 지사께서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5대방안을 제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충남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원자력발전과 수력발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도 도민을 위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618지방도 확충은 내포신도시 활성화 방안의 중요한 열쇠...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 가능

다. 또 예산읍에는 다양한 예산읍의 공동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많은 이러한 좋은 문화유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제역사문화지구로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백제역사가 웬지 모르게 축소되는 느낌을 받는다.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국도 39호선과 618도로 14.8km가 확장되어진다면 바로 예산읍의 공동화 현상도 억제될 수 있고 백제역사의 문화적인 다양한 확장기능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도 내포신도시의 발전에 있어서 디딤돌과 그리고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더욱이 향천사는 수덕사보다 먼저 세워진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협조해서 대형버스조차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하루빨리 해결 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과 빛나는 역사를 통해서 충남의 도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618도로의 확·포장을 당부 드린다.

- 삶의 터전인 흙이지만, 공기·물 등에 비해 저평가…도시·산업화로 훼손 심각 단계
- 영농폐비닐 발생량 57%인 1만9306톤만 수거되는 실정…원상회복 어려워

삼어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셋째, 법정기름일로 흙의 날이 제정되었다. 흙의 날 제정을 추진한 것은 흙은 보전함과 더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다. 단순한 법정기름일 규정 이상의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흙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도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토양오염은 농촌 생활 쓰레기가 주요 원인중에 하나이다. 농촌 쓰레기 수거 확대 방안과 농촌 생활하수 정화처리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벼 일조작만 하는 농지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퇴비가 농지별로 배정되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원예작물, 과수 등은 퇴비 배정량이 부족해 보조 없이 비싼 값으로 퇴비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수도용 일조작의 퇴비 배정량을 줄여 이모작이나 원예작물, 과수 쪽으로 증량하여야 할 것이다.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삶의 터전으로 활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다양하게 이용될 것은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토양의 지력 보강과 유해 중금속의 분리 및 중화와 제거 등을 통한 흙의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연 의원
본회의 2016. 7. 2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필요

- 가정·학교 폭력 등 위기의 청소년 다수...2013~2014년 충남 청소년 자살률 1·2위
- 경기, 경북, 인천, 광주 등 이미 청소년 PTSD 사업 펼쳐기도...충남 대응력 미흡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적인 사건이나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사람이 극심한 공포, 무기력 등의 정신적 장애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질병이다. 우리사회에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약14~43%이다. 이들은 대부분 충격적 사건에 대한 정상적 반응으로 극심한 공포, 불안, 과잉반응, 우울 등의 반응을 보이다 2~3일 내에 회복되지만 20%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는 스트레스 대처에 취약해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 정도가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하여, 높은 공격성과 부적절한 또래관계, 학업부진 등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충남지역 청소년의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각각 6.1명과 7.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연속 1, 2위를 기록했다. 자살은 자살자 1인 주변의 최소 6명 이상의 주위 사람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영향과 자살위험을 전염 시킨다고 한다.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바로 자살자 주변의 청소년이다. 충남지역의 특성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아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통해 경험하는 2차적 심리적 외상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충남의 청소년들은 직·간접적으로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게 가지고 있다. 경기, 경북, 인천, 광주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는 가장 높은 위험수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대응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충남의 총인구 중 17.8%가 청소년이다. 어르신들의 비율은 16.9%입니다. 청소년은 막연한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동반자이다. 아직 어리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청소년 심리사회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을 위한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시고, 그에 따르는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김용필 의원
본회의 2016. 7. 21

구 충남방적 활용한 예산군 공동화 해결해야

- 지역경제 활성화 한 획 담당하던 공장이었지만, 사양길 접어들어...각종 공해 유발 우려
- 예산군 전출자 증가 현상 억제하기 위해선 충남방적 활용한 상생의 길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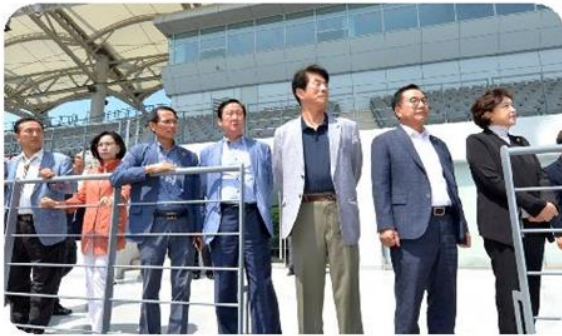
충남연구원은 지난 달 6월 8일 발간한 충남리포트 225호를 통하여 2040년 충청남도 시·군 인구 추계를 발표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예산군 인구가 2040년에는 지금보다 3만 명이 감소한 5만7,45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금 내포신도시의 예산 권역 개발이 미비한 상황으로, 홍성군의 인구는 10여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예산군은 내포신도시의 홍성 홍북면 인구 이동으로 말미암아 8만 명 선도 위협을 받고 있다. 예산을 공동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은 기업유치 밖에 없다. 예산읍을 도청 이전 지역으로 포함하여 충남 균형 발전 지역에서 배제 한 도지사께서는 충남도민의 수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공장 유치에 협조하여야만 한다. 새로운 공장유치가 아니라 예산읍 도시 한 가운데에 15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어져 있는 구 충남방적 공장을 새롭게 가동 되도록 부탁 드리는 것이다. 조선의원 시절에 농수산경제위원으로서 도의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 위하여 2010년 10월 21일, 구 충남방적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였고,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하여 구 충남방적의

해결을 수 없이 촉구하여 왔다. 또한 예산군민들께서는 학연, 혈연도 없는 저에게 18만 인구에서 8만 인구가 떨어진 인구 감소의 해소를 위하여 구 충남방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재선의원으로 지지를 하여 주었다. 충남도는 2010년 10월 14일에 의회와 예산군, 충남도 그리고 SG그룹 관계자 간에 개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30일 부지 활용 방안으로 SG그룹이 예산군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SG그룹의 요구는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일반 공업지역을 상업·주거·녹지 지역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내포신도시의 홍성권역중심 개발로 인한 예산읍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예산군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 해결은 충남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군과 협의를 거쳐,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 SG그룹의 이익범 회장 측에 적극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나서 주어야만 한다. 전입자보다 전출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감안해서 개발 의지를 표명한 SG그룹이 돌아서지 않도록 충남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서 주기를 간절히 호소 드린다.

문화복지위원회 07.19

제97회 전국체전(10.07~10.13) 준비 상황 점검

-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과 보령 요트경기장 등 차례로 점검...성공 개최 당부
- 향후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노력 경주...해양스포츠 메카 발판 마련해야



행정자치위원회

내포신도시 내 방송국 설립 촉구

- 도 홍보협력관실 및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소통·공감 도정 추진 당부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19일 열린 도 홍보협력관실 및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 내포신도시 내 KBS 방송국 조기 착공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차별화한 홍보기법을 도입해 도민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KBS 방송국 설립 추진을 촉구하며 지역방송은 건전한 여론 조성 and 지역사회의 감시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 홍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방송국 설립을 통한 도민 소식을 알리는 등 도정 홍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며 홍보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제안했다.



김동욱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



김종문 의원



김석곤 의원



신재원 의원



유익환 의원



이공휘 의원



이중화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외계층 생활 지원 정책 마련 촉구

- 복지보건국 및 4개 의료원 업무보고 청취...
감염병 조기발견 등 감시체계 강화 주문



문화복지위원회는 7월 15일 열린 복지보건국과 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여가시설 현대화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감염병 조기발견 및 대응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도민 건강권 확보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계획 수립과 종일반 자격 인정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를 자세히 점

검하고 편법적인 긴급보육 바우처 사용 강요 등을 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 해외여행이 증가됨에 따라 각종 감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감염병 예방관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정희 위원장



윤지상 부위원장



김기영 의원



김연 의원



김원태 의원



김홍열 의원



이기철 의원



조길형 의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유독물질과 대기오염 등 철저한 모니터링 당부

- 환경녹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 등 업무보고…
주민 안전 1순위 불안감 해소해야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7월15일 열린 환경녹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유독물질과 대기오염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최근 금산군에서 유독물질로 알려진 불산이 유출된 것과 관련, 수질 및 토양 오염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데 따른 것이다.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 문제는 이제 모든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충남도의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를 활용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련 조례에 여성 비율을 정해 놓는데 이는 양성평등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안을 불필요하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사회가 양성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미세먼지가 서북부권을 모두 뒤덮었다. 덩달아 관광객도 급감하는 추세라며 미세먼지 공포에서 벗어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용일 위원장



김명선 부위원장



김문규 의원



김복만 의원



김응규 의원



송덕빈 의원



유병국 의원



홍재표 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내포신도시 주변 시군과 연계 협력 발전동력 마련

- 내포신도시권·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원안 찬성
- 호남고속철도 개통 계기로 신성장 거점의 교통, 교육 등 융복합 발전 전략 함께 마련 주문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촉진하고, 주변 시·군과의 연계·협력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이 추진된다. 또 호남고속철도(KTX) 개통을 계기로 신성장 거점의 교통, 교육, 역사·문화 등 융복합 발전 전략도 함께 계획된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7월 19일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찬성했다.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은 광역계획권 전체의 발전잠재력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천방향을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30년까지 충남의 균형성장을 돕는

동시에 환황해권의 교류전진기지로써 중요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 경우 북부권 및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충남 남부권의 실질적인 상생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공주역세권 활성화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협력력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과 전략사업을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맹정호 위원장



정광섭 부위원장



유찬중 의원



전낙운 의원



조이환 의원



조치연 의원



홍성현 의원

교육위원회

오래 방치된 폐교재산 처분 등 대책 마련해야

- 일선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
폐교 학생 비행·이탈 장소로 사용될 소지 다분



교육위원회는 7월19일 열린 일선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보고에서 오래 방치된 폐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폐교의 경우 학생들의 비행·이탈 장소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 전체 폐교재산 65개교 중 현재 23개교가 매각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각종 이탈 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다며 조속한 처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요즘 청소년의 역사인식이 매우 미흡하다며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터전인 간도나 길림성에 대해 무지한 실정이다. 역사 유적지에 대한 문화 체험·탐방 활동을 장려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재산관리부터 예산·회계부서의 공무원이 타 부서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한다며 전문성을 기를 다양한 교육을 개발하고 시책을 추진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놀이시설이 유해물질로부터 100% 안전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아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기승 위원장



이용호 부위원장



김용필 의원



백낙구 의원



서형달 의원



오배근 의원



오인철 의원



이진환 의원



제289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조례안 10, 결의안 2, 기타 5
원안가결 16, 수정가결 1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된 조항 삭제 등 정비 - 도세 부과징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서류송달 방법 및 교부금전 예탁 - 도세 징수교부금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군에 교부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 자동차 등록사무와 관련 사용본거지 무관할 타 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업무 위탁
조례안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된 조항 삭제 등 정비 - 취득세의 신고납부, 과점주주의 신고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납기 규정 - 레저세 장부비치의 의무 -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방법 및 부과징수, 부과대상지역 규정
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연장 및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정비 - 시각장애인 4급 소유자동차 감면기한 2018년까지 연장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조례로 취득세 100% 감면 -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 관련 신고업무 위·수탁 처리, 사무처리의 위임, 최소납부제 관련 신설
조례안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추가와 범위 설정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남도립대학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 대학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 대학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 근거 마련 - 입학전형료에 관한 근거 재정비 및 입학전형료 반환 제한 규정 삭제 - 등록금 납부 및 등록금 책정을 위한 근거 재정비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
조례안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사항을 정비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 법률과 중복되는 정의 삭제 및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 -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변경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부위원장 삭제 · 당연직 5인과 위촉직 15인 구분을 삭제하고 20명 이내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등
조례안	충청남도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환경분쟁 조정법」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을 기준에 맞게 정비 - 제명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예관한조례”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를 삭제 -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 삭제 등 정비
조례안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을 “사업비 등”으로 변경
조례안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장기승 의원 (홍성현, 맹정호, 김석곤, 송덕빈, 김중문, 서형달, 유익환 의원)	원안가결	병역의무의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학부모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 학교의 재량휴업일 등을 활용한 공무원의 학습휴가제 운영, 3일장 중심의 장례문화에 따른 특별휴가를 위한 근거 마련 -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입영 : 1일 - 고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학교 행사에 참석 : 연간 3일 - 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학습휴가 : 연간 3일 -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남에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신설, 이전, 지번주소 변경사항 정비 - 학교신설 : 1교 1원(홍성한울초등학교, 한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위치변경 : 2교 1원(광천초등학교, 광천중학교, 광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주소변경(4교 3원) : 지번주소→도로명 주소
기타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찬성)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촉진 및 내포신도시와 주변 시·군과의 연계, 협력 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3, 목표년도 2030년 - 공간적 :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기타	공주역세권 광역도시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지사	원안가결 (찬성)	호남고속철도(KTX) 개통을 계기로 신성장 거점의 교통, 교육, 역사, 문화, 주거, 산업 등 융복합 발전전략 수립을 통하여 북부권 및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 낙후된 충남 남부권의 실질적인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3년, 목표년도 2030년 - 공간적 범위 :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기타	내포문화권발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내포문화권발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 활동기간 : 2014. 8. 25. ~ 2016. 6. 30. - 성과 및 향후과제 ·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성과 거양 ·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가속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내포신도시 균형발전 및 구도심 공동화방지와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건설 7만 성장동력 확충방안 모색 · 구도심 공동화 방지 및 홍성·예산 상생발전 위한 사업 발굴 · 내포문화권 특장지역개발사업 중 미추진 사업 조기 착수 노력
기타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3농 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 활동기간 : 2015. 7. 9. ~ 2016. 6. 30. - 성과 및 향후과제 · (3농혁신 분야) 농업현장,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및 대화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 개선 및 건의사항 반영 등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활력소 및 동기 부여 · (안면도 관광지 개발 분야)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이 국제수준의 경쟁력 있는 명품 휴양관광지로 거듭나고

안건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결과	주요내용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과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능동적 대응에 일조 ·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분야) 대규모 개발사업 방식은 관 일방주도의 "선지정·후개발" 방식에서 민간주도의 "선수요·후지정" 방식으로 개선 유도 ·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분쟁 분야) 민·관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 및 도민 인식제고 확산 노력에 일조
기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 － 2016. 11. 8. ~ 11. 21. (14일간)
결의안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홍재표 의원 (유병국,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송덕빈, 김복만, 김응규, 맹정호 의원)	원안가결	국내 화력발전의 절반이 우리도 서해안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 남발하고 있어,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
결의안	(가칭)KBS 내포방송국 조기설립 촉구 결의안	오배근 의원	원안가결	· KBS는 국가공영방송사로 시·도별로 18개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KBS방송국이 시·도에 설치 되어있으나, 충남만 유일하게 방송국이 없음. · KBS는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비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어, 내포방송국의 조기 설립을 촉구



백제 불교 문화재 및 유적 국내외 알리기 박차

■ 도내 내재한 많은 백제 유적 추가 세계유산 등재 노력 병행... 귀추 주목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07.07)

충청도의회는 7월 7일 서산문화원에서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맹정호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토론회는 도내 불교유적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이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가 기조 발제를, 김선임 보원사 사무장, 임경호 충남도 문화재과 학예연구사, 이병렬 서산타임즈 대표,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맹 의원은 “지난해 백제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가 있었지만, 백제의 미소로 상징되는 서산마애불 등 불교 유적이 제외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백제 불교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불교가 우리의 삶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며 “역사적 가치가 높기에 충남 불교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대안을 계속해서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기념물 합덕제 관광 명소 탈바꿈 작업 돌입

- 합덕제 관광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합덕제 발전 방안 모색
- 연꽃단지 구획화, 탐방로 개설, 스토리텔링 등 지역 축제와 연계 방안 제언



당진 합덕제 관광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08.03)

충청도의회는 8월 3일 당진시 합덕읍 소들문화회관에서 ‘당진 합덕제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명선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인 합덕제 관광여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합덕지역은 조선시대 3대 방죽 중 하나인 합덕제 등 역사자원과 유서 깊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생태자원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2007년부터 내포문화권 정비사업 등 노력이 있었지만,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여 궁남지 사례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해 합덕제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전문가 및 지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유기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동시에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홍우 도 관광산업과장은 “합덕제에 식재한 우수한 연꽃 자원의 활용성이 미흡하다”며 “천주교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자율적인 영역확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정책 기능과 역할 재정립 나선다

- 김연 의원 대표로 한 장애인 정책 연구모임 출범...활성화 방안 강구
- 발달장애인 자립·재활 및 장애인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논의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7월 20일 충남도 장애인 정책 연구모임을 결성, 본격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 발굴 활동을 예고했다.

이 연구모임은 향후 도립장애인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포괄적인 장애인 정책을 점검, 문제점을 찾아 해법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애인 정책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자립 및 재활에 대한 방안 ▲장애인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도농 마을단위 복지 서비스 모형 발굴 ▲도립장애인 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이동서비스 제도 개선 등을 연구한다.

김연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서비스의 획기적인 양적 확대를 가져왔지만, 질적 성장은 더딘 상태”라며 “향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

검과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모임에는 김연 대표를 비롯해 오배근 의원, 이공휘 의원, 오인철 의원, 유병국 의원, 한상경 천안인애학교 교장 등 12명이 참여하여 오는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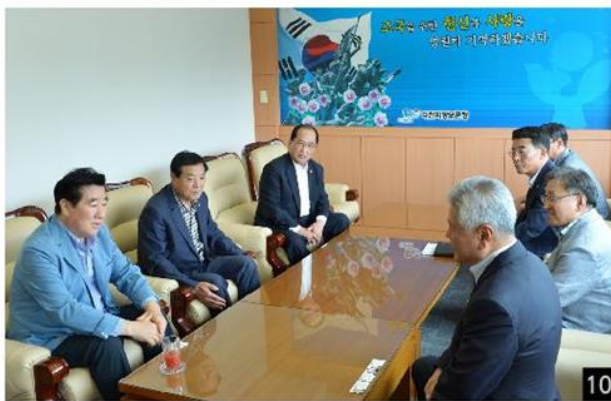




- 1 7월 01일 _윤석우 의장은 충청남도의회 접견실에서 취임 축하인사 온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접견했다.
- 2 7월 01일 _윤석우 의장은 충청남도의회 접견실에서 취임 축하인사 온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접견했다.
- 3 7월 01일 _윤석우 의장을 비롯한 신재원 제1부의장, 조치연 제2부의장 등이 예산군 충의사를 찾아 참배했다.
- 4 7월 05일 _윤석우 의장, 신재원 제1부의장, 조치연 제2부의장은 장항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 5 7월 05일 _ 신재원 제1부 의장은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7회 충남 수산업경영인대회에 참석했다.
- 6 7월 14일 _ 윤석우 의장, 장기승 교육위원장은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2016 하계 전국교육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 7 7월 22일 _ 윤석우 의장은 충남도의회를 방문한 주한 카타르대사관 파울 상무관 일행을 접견하고 본회의장 등을 안내했다.
- 8 7월 26일 _ 윤석우 의장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 충남 사회적경제 주간행사에 참석했다.



- 9** 8월 02일 _ 윤석우 의장, 장기승 교육위원장, 오배근 의원, 이종화 의원, 김홍열 의원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PEACE ROAD 2016 충청남도 통일대장정 행사에 참석했다.
- 10** 8월 02일 _ 윤석우 의장, 신재원 제1부의장, 조치연 제2부의장은 이명현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 11** 7월 26일 _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은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6 전국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했다.



- 12 7월 27일** _ 이공휘 의원은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천안 불당초등학교 학생들과 현장 의정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 13 8월 15일** _ 김종문 운영위원장, 김연 의원은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 14 8월 16일** _ 윤석우 의장은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3분기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의에 참석했다.
- 15 8월 15일** _ 윤석우 의장,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명선 의원은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2016 충남 친농연 전진대회에 참석했다.

느낌여행 충남



백제문화제

- 개최기간 2016.09.24. ~ 10.02.
- 개최장소 부여-공주 일원(개막식- 부여, 폐막식-공주)
- 연 락 처 041-635-6980



공주알밤축제

- 개최기간 2016.09. 24. ~ 10.02.
- 개최장소 공주시 금성동 연문광장 일원
- 연 락 처 041-840-8090



남당항 대하축제

- 개최기간 2016.09.19. ~ 10.04.
- 개최장소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일원
- 연 락 처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041-630-1227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정 활동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의 생중계시스템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주세요.

접속방법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주소
(council.chungnam.go.kr)입력
안드로이드 마켓에 '충청남도의회'검색 후 앱 설치
PC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충청남도의회'검색하여
앱 설치(내폰으로 보내기)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의회 방청안내

방청문의 : 총무담당관실 ☎ 041-635-5054

의회홈페이지(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에서 방청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 041-635-5009)로 보내주시면 접수하여
방청 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시 유의사항

방청석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한 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등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방법

- 이메일 : jungsnk@korea.kr
- 전 화 : 041-635-5102
- 팩 스 : 041-635-5009
- 우 편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충청남도의회)
※ 구독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 운영

-  www.blog.naver.com/cncouncil
-  www.facebook.com/cncouncilNP
-  www.mobile.twitter.com/cncouncil
-  카카오톡에서 Cnc12 검색 후 소식받기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